생명 살림,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불교상담개발원, 10월 15일 범어사서 생명존중 강좌 개최



불교상담개발원은 '생명 함께 더하기 실천 사업'으로 생명존중 · 자살예방 대강좌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10월 15일 개최했다.

생명존중 · 자살예방은 곧 불살생이며 비폭력 자비 운동임을 알리는 대강좌가 열렸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생명 함께 더하기 실천 사업'으로 생명존중 · 자살예방 대강좌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10월 15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밝행복치유센터 원장 선업 스님이 나서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설법했으며, 불교상담개발원은 참가자에게 생명살림 서약문을 나눠 동참을 권유했다.

선업 스님은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 오계 중 1번째가 불살생이다. 불살생과 비폭력은 같은 말이며 자신에 대한 모든 폭력을 멈추는 것이 자살 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에서 본 자살 원인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탐 · 진 · 치"라며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고 얻지 못하면 분노하고 좌절한다. 그래서 자신을 해치는 모습이 바로 자살로 나타난다"고 풀어 설명했다. 아울러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자신이 부처라는 믿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고 남도 살게 하자"고 당부했다.

생명살림, 자살예방 운동 확산
범어사에서 첫 시작, 전국으로
전문상담가 기초 과정 '전문화'
"자신을 사랑하는 자비심 필요"

대강좌에는 범어사 포교국장 효산 스님과 이범수 불교상담개발원 부원장이 참여해 격려했으며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효산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사회 기여 활동에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대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제안하는 강좌와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 범어사에서는 앞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일요법회와 연계해 생명존중 자살예방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대강좌와 함께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에서 '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을 9월 29일, 10월 13일과 20일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해 전문화에 앞장섰다. 자살예방 교육상담 전문가 기초 과정은 자살예방 이론과 자살 위기자의 감정 및 정서 조절에 대한 내용 등 구체적인 자살현상 이해 교육이 실시됐다.

강좌에 참석한 불자들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은 불교가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이뤄내 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행사를 반겼다.

이명순(55 · 청룡동) 씨는 "강좌 내용은 쉽게 풀어 설명해 알아듣기 좋았고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불교 사회 역할이 더 확장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미순(45 · 청룡동) 씨는 "좋은 강좌를 열어 주셔서 감사한다"며 "자살은 없는 밝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전했다.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생명 함께 더하기 실천 사업'은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며 범어사를 시작으로 전국 사찰과 연계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강좌는 광주 증심사와 자비신행회 공동으로 11월 4일 자살예방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사명대사 호국 정신 감사"

사명대사 407주년 추모대재 봉행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0월 15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호국광장에서 열반 제407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사진〉

회장 경선 스님은 "사명대사의 호국은 백성을 사랑한 애민이었다"며 "사명대사는 누구보다 중생을 사랑하고 아낀 자비보살의 화신이었다"고 대재사를 전했다. 추모대재에는 회장 경선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심산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종교와 문화예술이 하나로 뭉쳤다!

청량사, 10월 15일 '달빛 차 평화 음악회'



공동선실천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와 (사)향기로운 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이 공동으로 '달빛 차 평화 기도회 및 음악회'를 기장 청량사서 10월 15일 개최했다.〈사진〉 이날 6대 종교인들은 종교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공동기도문을 낭독했다.

정여 스님은 "종교 간의 사랑과 자비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리"라며 "사랑과 자비는 모든 인류를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제2기 기장 차문화대학' 졸업식과 북카페 '야단법석'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다.

하성미 기자

에밀레전, 신라의 혼을 일깨우다



BBS불교방송은 신라왕국체험축제 제6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을 10월 13~15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열었다.〈사진〉

이번 축제는 중국과 일본, 유럽의 전통 종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국보와 보물 등 100여개 신라유물들을 최첨단 3D홀로그램쇼로 재현한 것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은 "우리의 소리문화를 재인식하고 신라의 혼과 경북의 혼을 일깨우는 노력이 곁들어진 정신문화행사"라면서 "앞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옷을 입히고 창조적 스토리를 더해 경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국사, 역대 중흥조 추모 영산재 봉행



토암산 불국사(주지 종우)는 10월 14일 경내 범영류 앞에서 불국사를 창건하고 중흥시킨 5명의 역대 조사들을 염원하고 기리는 제45회 영산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영산재는 육법공양과 헌화, 법어추모사, 봉향제문 낭독, 범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기원대재는 헌향 및 삼배, 기원문 낭독, 금강경 독송, 살풀이춤, 축시, 퓨전국악, 홍순지의 명상음악 등으로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하불교연합회 불자의 밤 한마당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는 10월 13일 약수사에서 '제5회 사하구민을 위한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행사 1부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노력 봉사한 봉사자 표창과 봉행사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와 상품 추천으로 지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회장 혜우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을 설파하셨다"며 "사하구불교연합회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지구촌공생회, 경남에 자비의 문 열다

10월 17일 가야백화점 2층에 경남지부 개소



지구촌공생회는 10월 1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 가야백화점 2층에 지구촌공생회 경남지부를 개소했다. 초대 지부장에는 김영미 창원시의회 의원(아래 줄 오른쪽에서 3번째)이 추대됐다.

국제개발협력NGO 지구촌공생회가 경남 지부를 개소하고 부산, 창원, 마산 등 경남 일대에서 자비의 창구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0월 1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 가야백화점 2층에 지구촌공생회 경남지부를 개소하고 초대 지부장에 김영미 창원시의회 의원을 추대했다.

개소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창원시의회 김하용 의장과 김종대 부의장, 정구창 창원부시장, 경남도의원, 창원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출발을 축하했다.

월주 스님은 "창원시는 국제교육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를 건립하고 지구촌공생회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그 후 지금까지 각별한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류에 대한 자비 실천에 뜻을 함께 하고 창원시에 경남지부를 설립하게 되어 기쁘다"고 격려했다.

김영미 경남지부장은 "캄보디아에 방문 했을 때 만난 어린이들의 맑은 눈빛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며 "앞으로 지구촌공생회와 협력해 경남도민의 온정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어 "국제교류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창원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최초 ODA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을 설립해 2014년 주정부로부터 공립학교로 인가받은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센터'를 견학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따께오주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창원시 기증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 지원사업에 앞장서 왔다.

현재 지구촌공생회는 창원시와 협력해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과 지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태징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워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